

지역 소식통

부안군,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 부과

부안군은 경유 자동차 4,877건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3,595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2022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발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방식에 따라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올 상반기 체납세 강력징수 전개

고창군이 5월말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창군의 전체 체납액은 3월 현재 29억3,400만원으로 지방세는 15억5,6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7,8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조세 형평성 및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발생 즉시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사전 체납차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엄밀히 조사한다. 이를 통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납입·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선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차량 번호권 영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보건 의료환경 적극 대응

정읍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2023~2026년 4년간 3개 전략 9개 과제 진행

정읍시가 15일 정읍시보건의료회의실에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역사회 건강지표 분석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아날 심의회에는 김형우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10명의 심의위원과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지역의 특성 분석, 주민의 요구도 조사 등을 거쳐 제8기 정읍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으뜸도시 정읍'을 비전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보건의료 정책

및 공공의료의 접근성 강화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안심 도시형성이다.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과 예방접종 확대, 응급 의료체계 구축, 출산 전후 환경조성,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정신건강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부시장은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군민 부담 완화가 먼저"

고창군, 상수도 요금 동결 결정

고창군이 군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군민들의 생활부담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고창군은 부안군에서 광역 상수도를 전량 공급받고 있다. 2017년 상수도요금 인상(12.5%) 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고창군의회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 요구,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의 지속적 증가(2021년 17억원 적자) 등이 이어져 왔다.

군은 지난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제고'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수돗물 1t당 2000원의 생산비용이 발생했지만, 공급가격은 652원에 그쳤다. 요금 인상요인은 무려 211.2%로 나타났다.

고창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도 32.1%로, 전라북도 평균 72.9%, 전국 평균 73.6%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

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를 통해 보유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하반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동결조치가 가파르게 치솟는 생활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료이므로, 수돗물 절약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27일부터 마을별 현장 지급

선불카드 형태 1인당 30만원씩 지급

부안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2월 7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주소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집중 지급기간'을 두고 3

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배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

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각 마을별 현장 지급을 실시한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마을별 지정지급처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안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2023년 영농안정지원기금 용자 지원

부안군은(군수 권익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영농안정지원기금 신청·접수를 지난 13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이며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기구 및 유통기공시설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급까지 영농안정지원기금으로 용자 지원된 누적금액은 730농가 240억원에 이르며 올해도 60억원이 지원

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년도 영농안정기금 지원으로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낮은 이자로 용자 지원을 함으로써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를 해야 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용자기간은 3년이며 3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기관장협의회, 지역 발전방안 모색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지난 14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3월 기관장협의회(회장 임경수 정읍야생병원장)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기관장협의회 '정우회'는 상호 협력 관계 증진과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내 기관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아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과 임경수 정읍야생병원장을 비롯해 지역 내 28개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현안 사항과 관심을 공유했으며, 협의회 운영 방안과 각 기관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올해 정읍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등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창시방기부제 릴레이 캠페인과 교차 기부 캠페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특히, 정읍시 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이 '한국 최고의 인문 도시, 정읍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정읍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경수 회장은 "정읍시 주요 현안과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읍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기관장협의회는 지역 주요 기관장들이 함께하는 협의체인 만큼 지역의 리더로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읍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년 농림 축산식품 사업 1417억원 규모

정읍시가 2024년도 농림 축산식품 사업으로 총 68개 사업에 1,417억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농림 축산식품 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내년도 정읍시 예산 신청액은 1,417억원으로 지난해 신청액인 1,298억원보다 약 9%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정책 분야 18개 사업 582억, 축산 분야 16개 사업 390억, 임업·유통 분야 17개 사업 345억, 식량·원예 분야 17개 사업 100억으로 총 68개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신청 공고를 통해 읍·면·동



과 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어 지난 13일 이학수 시장과 농업 분야 기관단체장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농림 축산식품 사업예산 신청을 심의·의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